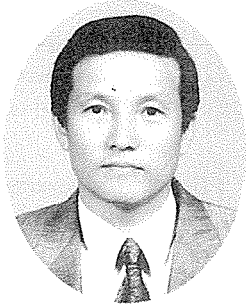


분단 46년 남북한과학기술용어⑧ 이렇게 달라졌다

해부학 용어편 <上>



鄭仁赫

(연세대의대교수/해부학)

1. 북한용어의 선택

북한용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북한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영인본으로 나온 현대조선말사전(1981), 6개국의학용어사전(1985), 조선말대사전(1992)에서 우리말로 다듬은 용어만 선택한 것이다. 현대조선말사전과 조선말대사전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갑상샘(thyroid gland)을 방폐샘(현대)으로 다듬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나온 조선말대사전에는 방폐샘은 없고 옛용어인 갑상선만 올림말로 삼았다. 조선말대사전은 정치적 이유로 매우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처음 나온 사전은 페이지가 틀리는 등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느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것이든 우리말로 된 용어를 북한의 용어로 선택하였다.

2. 한자용어

가. 오랫동안 사용하여 한자가 없이도 학교, 병원, 부모 등과 같이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용어는 남북한 모두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바깥생식기관의 용어나 마땅히 바꿀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경우도 한자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런 용어들은 남북한 모두 같은 용어를 쓴다.

보기 : 동맥, 정맥, 신경 음경, 질

기관지, 위, 간 막, 충, 판

나. 남한에서는 한자용어를 그대로 쓰나 북한에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달라진 용어들이 있다.

보기 : 관절(남)-마디(북), 인대-이음줄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교류가 없었고 정치사회적 환경 등이 달랐던 탓에 언어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래까지 남북한에서 쓰던 학술용어는 대부분 외래어나 일본식 한자말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말다듬기운동을 일으켜 대부분 학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학용어가 아직도 일본식 한자말로 되어 있다. 최근 대한해부학회에서는 일본식 한자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우리말다운 의학용어를 만든다는 데 바탕을 두고 1980년에 새롭게 다듬은 해부학용어집을 펴냈다. 이들 용어를 비교하며 남북한 의학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일러두기 : 보기에 있는 용어의 순서는 옛(남)-(북)이며 '옛'은 일본식 한자용어, '남'은 다듬은 해부학용어, '북'은 다듬은 북한용어를 가리킨다. []속의 용어는 앞의 용어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용어 가운데 있는 ()속의 용어는 생략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망막-그물막, 홍채-무지개막

구강-입안, 인두-목안, 비강-코안

다. 한자용어는 필수록 음절수를 줄였기 때문에 소리로 들었을 때는 혼동이 오는 수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부학용어에서는 음절수를 늘여 해결한 것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바꾸어 달라진 것이 있다.

보기 : 능(옛)-능선(남)-뿔(북)

사-경사[비스듬]-비낌, 활액-윤활액-미끌액

3. 토박이말

가. 우리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토박이말이 있고 이것을 학술용어로 사용해도 거부감이 없는 것은 토박이말을 사용하였다. 이런 용어는 남북한 모두 같은 용어를 쓴다.

보기 : 눈, 코, 귀, 입, 머리, 목, 손, 발, 무릎, 콩팥,

입천장, 숫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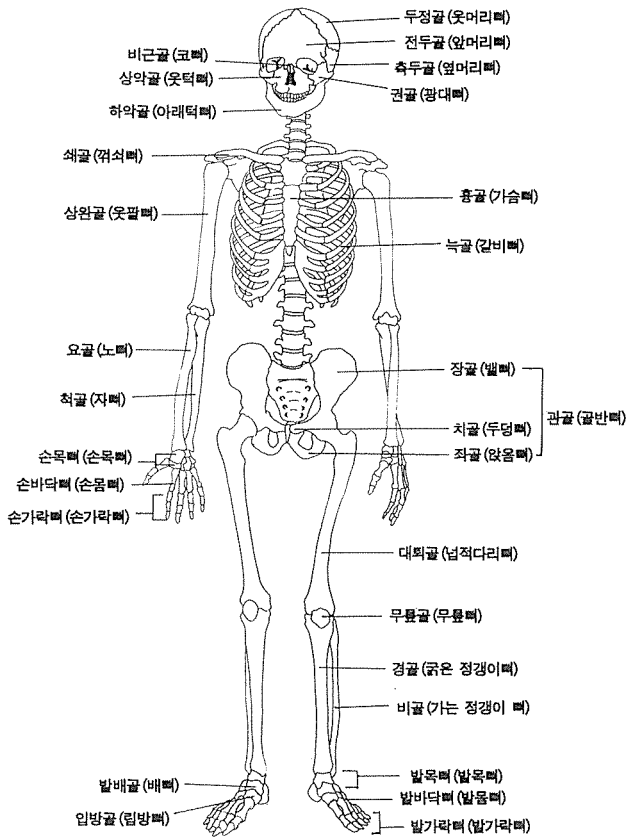
나. 토박이말이 있는 한자용어라도 널리 익숙해진 것이나 밥통, 배알, 이빨 등과 같은 낯춤말이거나 우리말로 했을 때 너무 풀여져서 용어로 쓰기 어려워진 것이 있다. 이런 용어는 남한에서는 한자용어를 그대로 썼고 북한에서는 토박이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다.

보기 : 방광(옛)-방광(남)-오줌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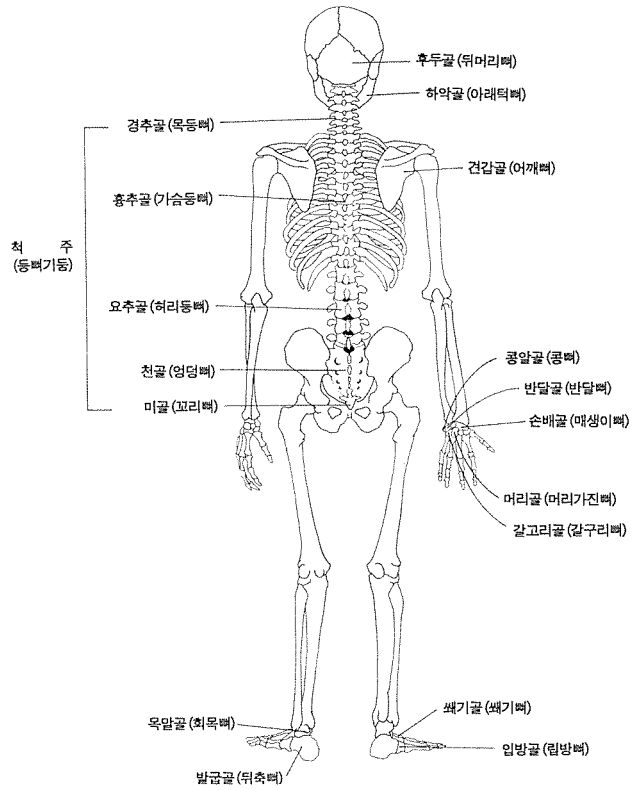
자궁-자궁-애기집, 난소-난소-알집

후두-후두-올대

고막-고막-귀청, 비중격-코중격-코청



〈뼈대의 앞면〉



〈뼈대의 뒷면〉

〈그림〉 남북한 뼈 이름 비교(괄호안은 북한용어)

다. 방향, 크기, 위치 등을 가리키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남북한용어가 거의 같다.

보기 : 앞, 뒤, 아래, 맨아래, 등쪽, 깊은, 얇은, 가운데, 긴, 짧은, 큰, 작은, 가로, 세로, 되돌이

4. 표준말과 맞춤법의 차이

가. 남한과 북한은 각각 서울과 평양 지역의 말을 표준말로 삼으며 낱말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 용어가 달라진 것이 있다.

보기 : (1)비장(옛)-비장[지라](남)-기레(북)

우리는 한자말 비장과 우리말 지라를 함께 쓰도록 허용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우리말큰사전에 평안도 사투리라고 되어 있는 기레를 쓴다.

(2)장-장[창자]-벨

우리말큰사전에 창자는 작은창자와 큰창자를 합하여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고, 벨은 배알의 준말로 창자를 낮추어 부르거나 동물의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다. 조선말대사

전에는 창자는 위와 벨을 합한 것이라고 하였고 벨은 유문에서 항문까지 즉 남한의 창자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였다.

나. 사이시옷 등 맞춤법의 차이로 달라진 용어가 있다.

보기 : 이개(옛)-컷바퀴(남)-귀바퀴(북), 치은-잇몸-이몸, 폐-폐-폐

다. 같은 한자용어라도 발음에 차이가 있어 달라진 것이 있다.

보기 : 항문-항문-홍문, 취장-취장[이자]-취장
라. 남북한용어에서 표현 방법이 다르거나 방향에 대한 짝이 되는 용어를 다른 것을 선택하여 차이가 생긴 것이 있다.

보기 : 상(옛)-위(남)-웃(북)

최상-맨위-맨웃, 내측-내측-안쪽

외측-외측-바깥, 외-바깥-겉

회선-휘돌이-돌이, 상행-올림-올리, 하행-내림-내리

5. 원래 용어의 뜻대로 우리말로 바꾼 용어

가. 많은 해부학용어는 그 구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이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실마리로 잡아 만들어졌다. 따라

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말로 바꾸기만 하면 쉬운 우리말 용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라틴어나 한자용어의 실마리가 바로 잡혀 있는 용어를 그 뜻대로 우리말로 바꿔 같아진 용어가 있다.

- 보기 : lacrimal gland(누선)-눈물샘-눈물샘
 trochlea(활차)-도르래-도르래
 flat bone(편평골)-납작뼈-납작뼈
 carpal bones(수근골)-손목뼈-손목뼈

나. 라틴어나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우리말 용어를 쓴 경우와 원래 용어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용어로 만든 경우가 있다.

- 보기 : 총(plexus)-얼기(남)-덤불(북)
 속(fasciculus)-다발-묶음
 측부(collateral)-곁-옆길
 절흔(notch)-패임-잘루기
 와(fossa)-오목[우목]-우무기
 와(fovea)-오목-오모기
 소와(fossula)-오목-잔오모기

6. 뼈이름용어

뼈이름은 뼈에 붙는 구조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에 많이 쓰이므로 뼈이름이 바뀌면 많은 용어가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그동안 뼈이름은 「...골」이라고 썼다. 해부학용어에서는 특정한 날개의 뼈를 가리키는 용어에는 「...골」로 쓰고 발목뼈, 손가락뼈와 같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무리를 이룬 것에는 「...

가.현재용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뼈이름 시안과 북한용어가 같은 것

영어	옛용어	현재용어	뼈이름시안	북한용어
frontal bone	전두골	전두골	앞머리뼈	앞머리뼈
temporal bone	측두골	측두골	옆머리뼈	옆머리뼈
sphenoid bone	접형골	접형골	나비뼈	나비뼈
lacrimal bone	누골	누골	눈물뼈	눈물뼈
nasal bone	비골	비근골	코뼈	코뼈
zygomatic bone	관골	권골	광대뼈	광대뼈
rib	늑골	늑골	갈비뼈	갈비뼈
sternum	흉골	흉골	가슴뼈	가슴뼈
scapula	견갑골	견갑골	어깨뼈	어깨뼈
carpal bones	수근골	손목뼈	손목뼈	손목뼈
phalanges	지골	손가락뼈	손가락뼈	손가락뼈
lunate	월상골	반달골	반달뼈	반달뼈
pubis	치골	치골	두덩뼈	두덩뼈
patella	슬개골	무릎골	무릎뼈	무릎뼈
tarsal bones	족근골	발목뼈	발목뼈	발목뼈
cuneiform	설상골	췌기골	췌기뼈	췌기뼈
phalanges	지골	발가락뼈	발가락뼈	발가락뼈

나.뼈이름 시안과 북한용어가 맞춤법이나 표현 등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영어	옛용어	현재용어	뼈이름시안	북한용어
parietal bone	두정골	두정골	윗머리뼈	웃머리뼈
occipital bone	후두골	후두골	뒷머리뼈	뒤머리뼈
maxilla	상악골	상악골	위턱뼈	웃턱뼈
pisiform	두상골	콩알골	콩알뼈	콩뼈
humerus	상완골	상완골	위팔뼈	웃팔뼈
femur	대퇴골	대퇴골	넓적다리뼈	넙적다리뼈
navicular	주상골	발배골	발배뼈	배뼈

다.남북한 뼈이름 용어가 다른 것

영어	옛용어	현재용어	뼈이름시안	북한용어
ethmoid bone	사골	사골	별집뼈	채뼈
vertebra	척추	척추골	척추뼈	등뼈
vertebral prominence	용추	용추골	목장강뼈	뿔족등뼈
lumbar vertebra	요추	요추골	허리뼈	허리등뼈
clavicle	쇄골	쇄골	빗장뼈	격쇠뼈
capitate	유두골	머리골	알머리뼈	머리가진뼈
scaphoid	주상골	손배골	손배뼈	매생이뼈
metacarpal bones	중수골	손바닥뼈	손허리뼈	손뿔뼈
hip bone	관골	관골	엉덩뼈	골반뼈
ilium	장골	장골	창자뼈	뱀뼈
ischium	좌골	좌골	궁등뼈	앉음뼈
tibia	경골	경골	정강뼈	굵은정강이뼈
fibula	비골	비골	장딴지뼈	가는정강이뼈
talus	거골	목말골	목말뼈	회목뼈
cacaneus	종골	발굽골	발굽뼈	뒤축뼈
cuboid	입방골	입방골	주사위뼈	립방뼈
metatarsal bones	중족골	발바닥뼈	발허리뼈	발뿔뼈

뼈」로 썼다. 북한에서는 뼈이름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고 「...뼈」로 표기하였다. 현재 해부학용어위원회에서는 다시 해부학 용어를 다듬고 있는데 뼈이름은 이것이 함성어를 이룰 때는 현재의 용어를 그대로 쓰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우리말로 된 뼈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말 뼈이름 시안을 마련하였다. 옛 용어, 현재용어, 현재용어와 함께 쓸 수 있는 뼈이름 시안 및 북한의 용어를 함께 비교한다.

뼈이름을 우리말로 지을 때 본래 토박이말이 있는 것이나 라틴말이나 한자말의 뜻을 우리말로 옮긴 것은 대개 남북한용어가 같다. 그러나 두덩뼈와 같이 라틴말 pubis나 한자 치골(恥骨)과 전혀 관계가 없고 토박이말도 없었던 것인데 이름이 일치한 용어도 있다.